

# 대구도시공사 대구의 희망 청사진 그린다

대구도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공공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988년 전국 최초의 도시개발공사로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30년간 여러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50만 대구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꾸준히 이어왔다.

공사는 그간 산업단지조성 사업으로 8개 단지 9천813천㎡, 택지개발사업으로 14개 지구 710만7천㎡를 구축했고, 공공주택건설로 32개 단지 2만7천876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개 지구 공동주택 8천613가구를 건립했다.

주거복지사업으로는 영구임대주택 6천800가구, 매입임대 2천127호, 전세임대 872호, 국민임대 146가구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등으로 평가받았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



다.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선도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사는 수성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금호위터폴리스 개발사업, 안심뉴타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이런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



수성의료지구 항공사진

# 시민의 행복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